

야에는 그 분야의 10%를 한도로 임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자 및 외국인 기술자는 멕시코인 기술자를 양성할 의무가 있다.

③정부의 제한적 관행

입찰서 심의시 멕시코산 구매분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부여되며,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자국업체 우선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상적인 회사운영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기 어려워 과도한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한구역내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해안에서 50km 이내 및 국경에서 100km이내)하

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소요 또는 신탁시 외무부의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토목부분 건설회사 참여지분을 49%로 제한(단, 99년부터 자유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④기타

공사계약서 및 각종 관련서류를 스페인어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종 지급보증의 과다징구로 실질공사 참여에 애로가 많으며 경기변동과 인플레이 형상이 심하다.

※ 다음호에 아시아, 북방지역, 중동지역 편이 이어집니다.

일본,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 마련 착수

일본 건설성은 오는 96년 건설시장개방을 앞두고 건설업의 국제화가 일본 건설산업체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책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건설성은 건설업의 현재상황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 내년 3월 「신건설산업정책대망」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성은 □일본 국내기업의 해외활동 동향 □외국기업의 국내시장참여에 따른 영향과 그 대응책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 기존데이터 정리·분석 및 해외실태조사,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검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성은 일본내 건설산업의 중장기계획 마련은 건설업이 국제화추세에 있고, 특히 일

본의 공공건설시장은 지난 4월에 체결된 GATT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오는 96년부터 협정가맹국에 건설시장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건설성도 GATT 정부조달협정의 비준에 따라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일본의 건설시장은 다른나라에 비해 건설 투자액이 많아 미국이나 유럽, 한국의 업체들이 강력한 진출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추세이다.

이로인해 일본 국내기업과의 경쟁심화와 새로운 협력체계생성으로 건설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검토위원회는 일본시장 진출의욕을 보이고 있는 각 나라별 건설업현황 및 국내시장의 동

향 등을 파악, 참여가능성을 조사하고, 실제로 이들 업체들이 일본건설시장에 참여했을 경우 끼치는 영향과 시장구조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게 된다.

또 외국기업의 참여시, 약관이 다른 클레임을 처리할 경우와 실제로 외국업체가 공사를 수주했을 때 상거래 관습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마찰이 일어날 것이므로 발주 및 계약의 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검토위원회는 기존데이터의 분석, 새로운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쟁관계, 협력형태 및 자재조달, 하도급구조의 패턴변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해외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는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도 건설·건설컨설팅업이 해외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건설시장 규모 및 구조를 조사하고 일본업체의 활동상황을 분석할 계획이며, 이같은 작업을 통해 선진국기업과의 제휴, 개발도상국 업체육성 등 앞으로의 해외활동방향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설·건설컨설팅업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정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민간단체인 일본 건설경제연구소도 「건설산업구조연구회」를 설치, 일본건설시장진출을 꾀하고 있는 한국, 미국 등의 외국 건설시장구조파악에 나서는 한편 향후 건설산업조직의 방향결정작업에 착수했다.

건설산업구조연구회는 생산·계약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의 사례조사에 들어갔는데 주로 발주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 각 주체가 어떻게 업무내용을 분담하고 있는지를 밝히게 된다.

또 각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계약시스

템과 이의 장·단점 및 사회적 배경 등을 조사해 건설산업조직의 방향을 모색할 때 참고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구조연구회는 외국분과회와 국내분과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헌조사와 의견청취를 통해 외국의 실태비교를 통하여 일본 건설산업의 특징을 분석·연구하게 된다.

연구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국내분과회는 일본 국내건설산업조직의 실태를 조사하여 외국의 실태와 비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발주자 및 종합건설업체를 비롯하여 컨설턴트 전문업체 자재메이커 보증회사 등을 대상으로 건설생산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의 주체가 수행하는 역할 및 분업체제를 조사·연구한다.

또 공공과 민간, 건축과 토목으로 나누어 기획에서 설계, 수주, 시공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주체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외국분과회는 주로 제네콘 해외업무경험자들의 의견을 듣고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 등 6개국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외국 건설산업조직의 구조를 연구하게 된다.

또 분과회는 각국의 건설생산시스템 가운데 발주자 및 설계자, 제네콘, 전문건설업체 등 각 주체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업무의 내용을 정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기술자를 비롯한 자격자의 배치규정 및 실태, 주체간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별 계약시스템의 실태도 파악하게 된다.

건설산업연구소는 생산·계약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일본건설산업의 조직특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동시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의 건설산업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